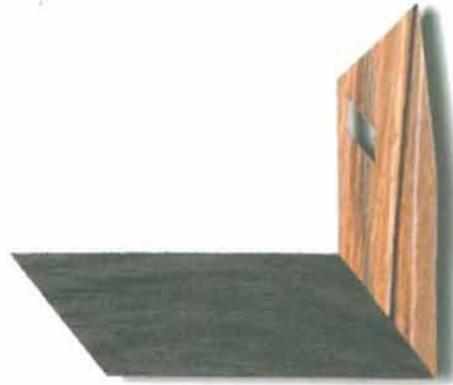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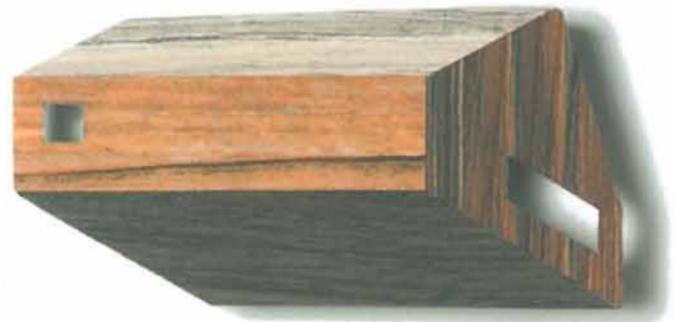


Design Your Lifestyle 생활을 디자인하면 행복이 더 커집니다

행복이 가득한 집

www.design.co.kr

2013 11



우리 집 어떻게 지을까?
특별한 건축 일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함께 하는 여행

연근과 우엉의 뿌리깊은 맛
최신판 피부 보습 가이드

Organic Style

자연이가득한 집

₩7,900



9 771227 115006
ISSN 1227 1152



한때 전신주이던 나무들

화이트 큐브 공간에 육중한 나무가 사방으로 꽂혀 있다. 불균형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는 이 나무들은 브라질에서 온 나무 전신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선을 연결하기 위한 쇠고리와 곱팡이, 나무 틈새 등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흔적이 곳곳에 박혀 있다. 브라질 출신의 설치 작가 카를리투 카르발료자 Carlito Carvalhosa는 이렇게 일상 오브제를 새로운 공간에 재배치하면서 '대기실(Sala de Espera)'이라 이름 지었다. "숲의 구성원에서 전신주로, 폐목에서 아트 오브제로 역할을 재규정하면서 인식에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국내 첫 전시를 기념해 내한한 그는 공간에 따른 재구성이 매번 생각의 전복을 이끈다고 강조했다. 12m에 가까운 전신주가 역동적 기운을 뿜어내는 전시다. 11월 12일까지 국제갤러리 3관에서. 문의 02-735-8449

'대기실(Sala de Espera)', old light posts, 500×2000cm,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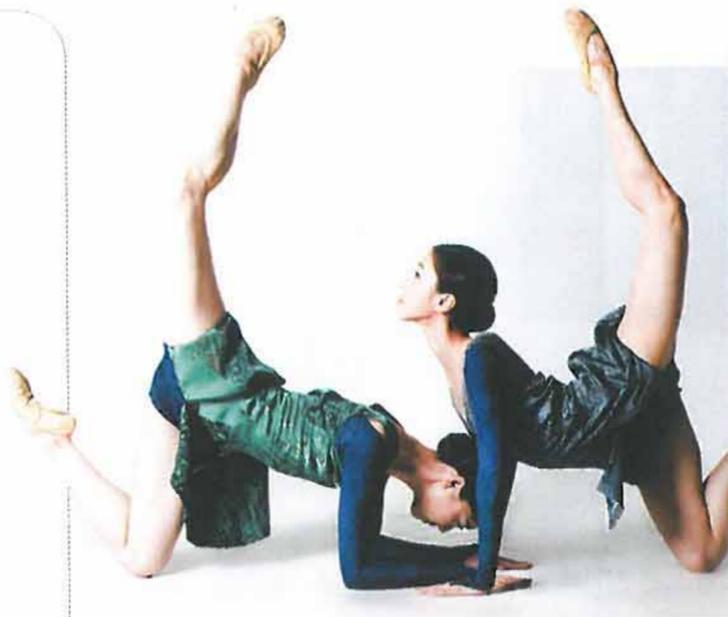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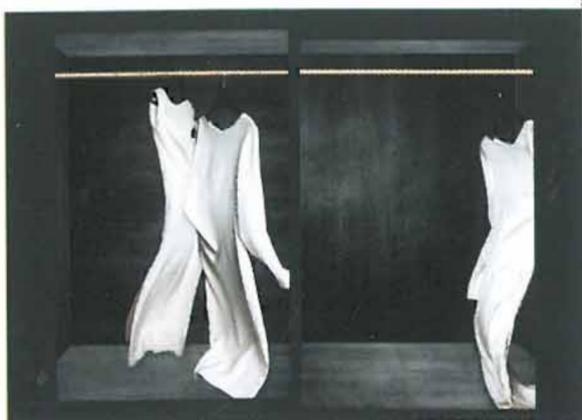


아, 이 사랑의 계절 재즈 싱어 웅산 씨가 2년 만에 일곱 번째 정규 앨범 <아이 러브 유 I Love You>를 발매했다. 타이틀 곡인 발라드곡 '아이 러브 유'와 '블루스' '보사노바' 등 직접 완성한 곡을 비롯해 밥 딜런, 레이 찰스, 엘비스 프레슬리, 산타나, 그리고 한국의 포크록 가수 이장희 씨 등 20세기를 움직인 뮤지션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 등 다채로운 장르에 도전했다.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가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세종M씨어터에서 열리니 놓치지 말자. 문의 02-566-3973

영원히 입을 수 없는 세계

사진작가 오상택 씨가 신작 20여 점으로 14번째 개인전 <CLOSETS>를 연다. 그는 현대 사회의 시대성을 상징하는 도구인 '명품 옷'으로 규정한다. 옷이 특정 계급처럼 인식되고 그 자체로 권력화되는 현상을 고민한 것. 옷장에 걸린 옷들은 그 움직임과 작품 규모 때문에 훨씬 과장되어 보인다. 평소 옷에 관심이 많은 작가는 그의 작품이 "스스로 본능적 자아에게 보내는 질책"이며, "이성이 본능에 주는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라고 고백한다. 11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화랑에서. 문의 02-542-5543

'closet #97, 98', photographic color print on canvas, 150×95cm, 2013.



이것이 모던 발레!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댄싱9>을 보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했다면, 유니버설발레단의 <디스 이즈 모던 This is Modern>을 놓치지 말자. 클래식 발레의 고전적인 아름다움에 현대 발레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무대로, 현대 발레 거장 3인의 작품으로 구성했다. 올해에는 한스 반 마넨의 '블랙 케이크', 나초 두아토의 '두엔데', 이어리 킬리안의 '프티 모르'와 '잭스 탄체'가 무대에 오른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문의 02-580-1300

세 남자가 부르는 세레나데

지난 해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보컬 앙상블 로티니 Rottini의 열광적인 데뷔 무대 이후 딱 1년 만이다. 이탈리아어로 부른 칸초네 네 곡을 담은 싱글 앨범 <비타 미아 Vita Mia> 발매를 기념해 단독 콘서트를 연다. 런던, 뉴욕, 발렌시아를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성악가 테너 박지민, 바리톤 조셉 임, 바리톤 알도 헤오 씨로 구성된 로티니는 각자 활동 무대가 다른 만큼 공연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았다고. 목소리가 로맨틱하고 감성적인 세 남자의 칸초네가 들리는 가을밤이 무척 기대된다. 11월 2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문의 02-741-1523

